

#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

## A Study for Establishment of Namdo Cultural Arts Archives - Focused on the Description El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for Cultural Arts -

정 대 근(Dae-Keun Jeong)\*\*

홍 소 람(Soram Hong)\*\*\*

강 혜 라(Hyera Kang)\*\*\*\*

### <목 차>

- |                          |             |
|--------------------------|-------------|
| I. 서론                    | 1. 기술요소 추출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기술요소 수정  |
| 2. 연구의 내용                | 3. 최종(안) 도출 |
| 3. 선행연구                  | IV. 논의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V. 결론       |
| III.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 기술요소 도출 |             |

### 초 록

본 연구는 남도 지역 문화예술자원의 구조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기술요소를 도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자원 개체 16개 요소 51개 하위요소, 개별 행위개체 2개 요소, 16개 하위요소, 행위주체 개체 8개 요소, 32개 하위요소, 시설 개체 2개 요소, 16개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자원, 개별 행위활동, 행위주체, 시설 등 4개 개체, 28개 요소, 117개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지역적 관점, 문화예술자원 관점, 문화예술인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요소는 타 연구와 구분된다.

키워드: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 문화예술 기술요소, 문화예술분류체계

### ABSTRACT

The study is to structure materials of cultural arts in "Namdo(Jeollanamdo and Gwangju)" province. Especially the study focuses on establishing description elements for serving diverse materials. First, the authors make the draft version(4 entities, 28 elements and 115 subelements) by reviewing literature and conducting case study. Then, experts review the draft version and the authors draws final version that consists of 4 entities(materials, performances, agents, facilities), 28 elements and 117 subelements. From the viewpoints of locality, cultural arts materials, and cultural artists, the description elements in this study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studies.

Keywords: Cultural arts archives, Local cultural arts archives, Cultural arts descriptions, Classification of cultural arts

\* 이 논문은 "전남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용역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basicwindy@naver.com)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gardenofstone@naver.com) (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학 석사(gang921229@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9년 5월 19일 •최초심사: 2019년 5월 28일 •계재확정: 2019년 6월 1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311-337, 2019. [http://dx.doi.org/10.16981/kliiss.50.201906.31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도(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예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예술의 고장으로써 예향(藝鄕)이라 불리며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하였고, 관련 유적을 간직하고 있다. 남도의 문화예술의 특성을 지춘상(1985)은 『남도문화예술 특질론』에서 예술성, 풍류성, 민중성으로 정리하였으며, 지금까지 이견 없이 수용되고 있다(이옥희 2014). 특히 남도예술의 경우 2016년부터 전라남도에서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12개 분야로 서화, 전통정원, 종가문화, 바둑, 문학, 다도, 도자, 판소리, 음식문화, 공예, 전통연희, 고인돌 등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남도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남도 도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52.7%로 전체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즉, 영화나 공연, 전시 관람 등 도민들이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로 전국 평균(78.3%)에 비해 25.6%나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낮은 인식은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이어져 문화예술자료의 소실이 심각한 현실이다.

문화예술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산업적 상상력과 창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며 지속적인 문화자산을 만들어내는 기반 역할을 한다. 즉 문화예술자원은 그 자체로 미래 예술창작을 위한 자원인 동시에 문화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초정보로서 활용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자원의 온전한 재현을 기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창작소재 발굴의 원천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오동욱 2013).

이는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의 기저에서 문화예술자원이 재생산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인식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자원의 보존이 우리 사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부산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등이 이용자 참여형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도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남도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남도 주민들의 문화예술 인식 신장을 위해서, 나아가 남도 지역의 문화예술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서 지역으로서의 남도는 문화예술자원과 문화예술인을 태동하게 만든 매개로서 작용한다. 문화예술인을 아카이브에 귀속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며, 문화예술자원의 주제나 창작행위의 동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도지역과 문화예술인의 관계, 남도지역과 문화예술자원의 관계 등을 표현하는 것은 아카이브 서비스를 주제 측면에서 특성화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과거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뿐 아니라 현재 생산되는 문화예술자원의 축적 및 재생산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남도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문화예술자원 현황 등을 수집·정리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 플랫폼의 구축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 자원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한 기술요소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내용

문화예술은 사회구조 및 시스템과 분절되지 않는 관점에서 해석된다(오세준 2016). 사회적 참여를 위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의미로서의 문화예술은 지역의 로컬리티를 규명하기 위한 좋은 주제가 된다. 기록에서는 로컬리티의 재현을 위한 유용한 방법론으로서 특정 주제, 지역, 사건을 선택하여 발굴하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제안하기 때문이다(설문원 2010; 2012).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채택하는 문화예술은 순수예술의 차원이 아니라 대중예술과 실용예술의 일면까지 포함함으로써 공동체의 집합기억에 잠재된 여러 일면을 설명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류한조(2013)가 설명한 문화 아카이빙의 개념, 즉 기존의 증거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보다 ‘문화재현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에 부합한다.

즉,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란, 지역의 로컬리티(locality)를 재현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동태적으로 존재하는 광의의 예술, 즉 문화예술과 그 예술을 설명하는 자원의 집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도문화예술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FRBR의 제1집단, 제2집단, 제3집단 개념을 적용해 문화예술자원, 문화예술인, 남도지역이라고 구분함으로써 그 범주를 실제화하였다. 첫째, 문화예술자원이란 예술가의 표현행위를 통해 남도문화를 반영하는 상(狀)이다. 둘째, 문화예술인이란 주체로서의 예술가로서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도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셋째, 남도란 예술가의 삶의 터전·활동의 장·영감의 원천으로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행위의 잠재적 동인이자 문화예술자원에 공동적으로 내재된 주제성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내용

	문화예술자원	문화예술인	남도지역
FR BR	제1집단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제2집단 (개인, 가족, 집단)	제3집단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근 거	• 예술가의 표현행위	• 주체로서의 예술가 • 전남이라는 지역을 (잠재적이든 표출적이든) 예술로서 나타내는 존재	• 예술가의 삶의 터전 혹은 활동의 장
의 미	• 남도문화를 반영하는 상(狀)	•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도문화를 동태적으로 만드는 존재 •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도문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존재	• 예술가의 창작행위의 잠재적 동인 • 예술작품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주제성
목 적	‘남도문화’라는 추상적 관념의 실제화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2호)

실체화된 3개의 범주 중 핵심은 남도‘지역’으로, 이 개념은 아카이브를 묶는 핵심 공동성이자 분류기준이다. 즉 지역과 개인, 지역과 자원의 관계를 표현하며 어디까지를 ‘남도의’ 문화자원으로 수용할 것인가가 남도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외연을 규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도에서 생산·소비되거나, 남도를 주제로 삼았거나, 남도 출신의 예술가가 생산한 문화예술자원을 기본 범주로 삼는다. 주제 분류 제하는 특히 전라남도청에서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일환으로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12개 분야(서화, 전통정원, 종가문화, 바둑, 문학, 다도, 도자, 판소리, 음식문화, 공예, 전통연희, 고인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에 관련되어 생산된 자원이라면 매체형식은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전술하였듯 기존 기록이 가지는 증거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보다도 ‘문화재현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아카이브, 특히 웹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전자기록의 수장고라기보다 오히려 정보포털의 개념과 유사해졌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기록 중 하나인 디지털화된 기록은 아날로그 상태로 존재하는 원본을 없애고 그 원본을 대체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고 내용의 보존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278). 즉 동태적으로 남도의 문화예술이 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예술품 자체·예술품의 해체·예술가의 자서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둔다.

### 3. 선행연구

설문원(2011, 220-221)은 기록의 관점에서 예술이 가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차 창작과 관련한 기록에는 개인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연예술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과 개인 등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식, 유형, 매체가 다양하며 기록 자체가 예술작품인 경우도 있고, 같은 작품이라도 여러 버전이나 재현물로 존재한다. 더불어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은 출판물이나 언론기사에 포함되므로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자원을 종합하여 일관되게 기술하는 방법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기록관리학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자원의 기술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예술분야 하나의 기술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논문들은 예술분야의 메타데이터 표준인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나 Vidual Resources Association (VRA)Core나 기록 분야의 기술표준인 ISAD(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술요소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기록학계에서의 문화예술자원의 기술 연구 중, 문화예술자원의 특성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기술방안을 제안한 논문을 다음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예술 분야에서의 개인은 예술가로써 하나의 컬렉션을 만드는 주제분야가 되기도 하는데, 개인은 생애사라는 서사구조를 지닌 훨씬 복합적인 존재이다. 또 예술작품에 있

어서 개인의 역할도 예술양식에 따라 몹시 다양하다. 이런 점에서 개인은 일반적인 기록관리에서 나타나는 생산자로서의 개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기록과 서사를 메타데이터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킨 사례인 구술사 기록에 관한 연구들도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2> 예술 분야 기록의 기술에 관련된 선행연구

주제	저자명	연도	제목	
개인으로서의 예술가 특성	개인	김진용	2013	개인아카이브즈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구술사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자원 특성	공연	이창민	2015	다중 출처 기반의 공연예술자료 기술에 관한 연구
	만화 · 웹툰	김선미, 김익한	2011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이재나, 김용, 오효정, 김건	2015	웹툰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문학	양서희	2011	지역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문학기록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오삼균, 권기성	2007	전통예술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한희정, 김태영, 김용	2016	다중개체모형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시각 예술	허지수	2013	미디어아트 도큐멘테이션을 위한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연구
		김경연	2012	아트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이지은, 김지현	2015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장지영	2017	미술작가의 기록 생산과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정공주, 박주석	2014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조수민	2015	기능 영역 기반 미술기록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황진현	2012	시각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연구
	영화	김진성	2011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음악	조정임	2010	대중음악 기록관의 구축과 기록관리	

<표 2>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과 작가의 관계 표현 방식이다. 작가가 작품을 생산해내는 과정과 그 작품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산된다. 따라서 작품이 유일한 자원도, 작가가 유일한 생산자나 이해관계자도 아니다. 이창민(2015)이 연구한 공연예술의 경우, 이해관계자는 연출가, 연주자, 배우, 작품의 원작자, 각색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연구에서는 작가의 특성과 예술창작 과정의 맥락을 추적함으로써 기록관리를 위한 기술요소에 반영하고자 한다(양서희 2011; 정공주, 박주석 2014; 장지영 2017). 따라서 작가-작품의 단선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혹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훨씬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진용(2013, 16)의 분류에 따르면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예술가 아카이브는 ‘개인통합아카이브’에 속한다. ‘개인통합아카이브’의 측면에서는 생애사 구분을 통한 기록의 수집과 인물별 분류체계 수립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기록은 그 개인과 관계 맺은 다른 개인 아카이브와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여러 전문가의 가치판단과 진위여부 검토가 필요하다(이은화 2009).

둘째, FRBR 관계의 적용이다. FRBR의 1집단, 즉 자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저작에서, 저작이 실제로 쓰이거나 제작된 형태인 표현형, 그리고 이를 유통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 구현형과 그 유통이 가능한 낱장의 자료가 개인/기관에 소장된 상태인 개별자료까지 그 층위를 나눈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공연예술에 많은 함의를 갖는다. 이창민(2015)은 공연예술이 동일한 공연이라도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공공기록과는 달리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바탕으로 ISAD(G)가 공연예술기록의 적용에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FRBR을 적용하여 개체를 5개(작품, 공연기획, 공연, 매체, 개별 자료)로 확장시킨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공연’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있고 그 공연이 초연, 재연, 연출가 변경 등 다양한 변화를 거쳐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체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중개체의 필요성이다. 작품과 작가를 구분하여 개체를 두는 것으로써, 메타데이터의 대상을 단순히 작품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예술에 관련된 모든 대상을 개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관점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방식을 차용해 접근해왔다. 김진성(2011)은 영화 기록을 작품과 개별 자료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고, 한희정, 김태영, 김용(2016)은 실체가 개인에 의해 드러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형문화유산, 행위주체, 기록정보자원, 기록관리업무 개체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황진현(2012)은 기록의 맥락 보존과 무결성 확보의 측면에서 다중개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즉 우선적으로 자원(작품)과 주체(작가)를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통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되, 그 외에 예술분야에 맞는 다른 개체를 추가하여 그 관계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요소 추출, 기술요소 수정, 최종 확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그 방법으로써 문헌연구, 사례연구, 2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자문회의, 서면자문), 실제 남도문화예술자원 샘플링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첫째, 기술요소 추출의 경우 문헌연구, 사례연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의 비교연구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의 경우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개념 및 지역 아카이브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문화예술자원 메타데이터 문헌연구 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자원 및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 특성을 도출하고 이

〈표 3〉 기술요소 도출 연구절차 및 수행과정

구분	기술요소 추출			기술요소 수정		최종안
	문헌연구	사례연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비교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샘플링 분석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24개 요소 172개 하위요소</li> <li>• 주체 5개 요소 28개 하위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17개 요소 69개 하위요소</li> <li>• 주체 5개 요소 31개 하위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18개 요소 71개 하위요소</li> <li>• 주체 5개 요소 31개 하위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16개 요소 51개 하위요소</li> <li>• 개별 행위활동 2개 요소 16개 하위요소</li> <li>• 행위주체 8개 요소 32개 하위요소</li> <li>• 시설 3개 요소 16개 하위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15개 요소 48개 하위요소</li> <li>• 개별 행위활동 3개 요소 13개 하위요소</li> <li>• 행위주체 6개 요소 23개 하위요소</li> <li>• 시설 3개 요소 13개 하위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16개 요소 55개 하위요소</li> <li>• 개별 행위활동 3개 요소 14개 하위요소</li> <li>• 행위주체 6개 요소 32개 하위요소</li> <li>• 시설 3개 요소 16개 하위요소</li> </ul>

를 통해 메타필드를 도출하였다. 사례연구의 경우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례를 수집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메타필드 요소를 추출하여 문헌연구의 요소와 비교하였다.

둘째, 기술요소 수정은 추출된 요소를 전문가 자문회의, 샘플링 분석, 연구진 논의 등을 거쳐서 작업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문화예술/메타데이터/정보서비스/시스템 분야 7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방향성 및 내용을 수렴해 연구진 논의를 통해 정의하였다. 샘플링 분석은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남도 대표 남중화의 대가인 1대 소치 허련, 2대 미산 허형, 3대 남농 허견 등 운림산방 가계와 관련 작품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목포 및 진도 일원의 기관 방문과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메타필드를 보완하였다.

셋째, 도출된 예비안을 자문회의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가 9인의 서면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여 메타데이터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 Ⅲ.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 기술요소 도출

#### 1. 기술요소 추출

##### 가.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아카이브 기술요소 추출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이 2개 결과를 비교하여 기본적인 기술요소를 추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요소 추출은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했던 선행연구 중 기술요소를 제안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2호)

문화예술 장르별로 구분하여 12개 연구에서 요소를 추출하였다(<표 4> 참조). 연구의 범주, 방향성,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기술요소의 대상을 문화예술자원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까지 확장하였다. 기존에는 전거데이터로 취급되던 자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자원에 관련된 기술요소는 ‘자원’으로, 문화예술인에 관련된 기술요소는 ‘주체’로 분류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4> 문헌연구 분석 대상 선행연구

주제	저자명	연도	제목	문헌연구 대상		
				자원	주체	
개인으로서의 예술가 특성	개인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	×
	구술사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	×
문화예술자원 특성	공연	이창민	2015	다중 출처 기반의 공연예술자료 기술에 관한 연구	○	×
	만화 · 웹툰	김선미, 김익한	2011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	×
		이재나, 김용, 오효정, 김건	2015	웹툰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	×
	문화유산	한희정, 김태영, 김용	2016	다중개체모형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	○
	시각 예술	김정연	2012	아트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	○
		정공주, 박주석	2014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	○
		조수민	2015	기능 영역 기반 미술기록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	×
		황진현	2012	시각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연구	○	×
	영화	김진성	2011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	×
	음악	조정임	2010	대중음악 기록관의 구축과 기록관리	○	○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요소 추출 결과 첫째, 자원 개체는 24개 요소(기록의 양식적 유형, 예술자원의 유형, 기록의 형태사항(전자적), 기록의 형태사항(물리적), 기록의 층위와 기록 분류체계, 기록식별자, 기록행위자, 기록 생산이력, 기록 표제, 기록 내용, 기록 내용의 주제, 기록의 접근, 열람, 공개, 기록 지식재산권, 기록 생산일시, 기록 언어, 기록 위치, 기록 보존기간, 기록 관리 이력, 기록 이용 이력, 기술 보존 이력, 기록 발행정보, 기록 수집, 연관자료)와 172개 하위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주체 개체는 5개 요소(주체 정보, 생산자주기, 관계 자원, 관련 대상(주체), 주체 정보 관리)와 28개 하위요소가 도출되었다.

나. 사례연구

사례연구를 통한 기술요소 추출은 예술분야 관련 정보포털·기관 홈페이지·자원 판매처(음원사이트 등)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망라적으로 검토하여 제공하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사례연구의 경우 1차적으로 도출된 문헌연구의 요소와 비교하여 기술되지 않은 항목은 추가하고, 이미 기술된 항목은 중복 체크하는 형식으로 요소를 추출하였다(<표 5> 참조).



<표 5> 사례연구 대상 명단

주제	연번	제목	필드 유형		주제	연번	제목	필드 유형		
			자원	주체				자원	주체	
시각예술	1	국립현대미술관 : 미술연구센터	○	×	연극	27	National Theatre's Black Plays Archive	○	○	
	2	아르코미술관	○	○		28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국립극장)	○	×	
	3	대한민국현대미술디지털아카이브	×	○		29	National Theatre Archive - Archive   National Theatre	○	○	
	4	백남준 아트센터	○	○		30	PLAY DB	○	○	
	5	Jewish Museum	○	○	현대무용	31	국립무용단	×	○	
	6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	×		32	Digital Dance Archives	○	×	
	7	Bibliothèque des Arts Décoratifs	○	×		33	NBA Dancer Archive	×	○	
	8	portail d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spécialisées	○	×		34	Square Dance History Project	○	×	
	9	Centre Georges Pompidou	○	○		무형문화재	35	국립무형유산원 -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	×
예술일반	10	김달진미술연구소	×	○	문학		36	한국근대문학종합목록 (국립중앙도서관)	○	○
	11	Archives of American Art	○	×		37	강릉디지털문학관	○	○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38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디지털도서관 한국문학작가정보	×	○	
	1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		39	The American Literature Archive	×	○	
	14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DA-Art)	○	○		40	Academy of American Poets: poets.org	○	○	
국악	15	국악아카이브(국립국악원)	○	○		41	세계여성문학관	○	○	
	16	국립국악관현악단	×	○		42	한국현대문학관	○	○	
	17	국립창극단	×	○		43	목포문학관	×	○	
대중음악	18	warnermusic	×	○		44	석정문학관	○	○	
	19	The Free Music Archive	○	○	45	전북문학관	×	○		
	20	Genie(지니)	○	○	46	혼불문학관	×	○		
	21	멜론(melon)	○	○	47	세익스피어 생가재단	○	×		
	22	한국콘텐츠진흥원 K-POP ARCHIVE	○	○	영화	48	한국영상자료원	○	×	
음악일반	23	Harp Column Music	×	○		방송	49	NHK 아카이브	○	○
	24	APPLE MUSIC	×	○	구술사		50	World Bank Group Archives (Oral History Program)	○	○
	25	Classical Music on Classical Archives	○	○		51	The Artists Archives of the Western Reserve	○	○	
	26	ALLMUSIC	×	○		인물	52	Jewish Women's Archive	×	○
							53	뉴욕공립도서관	○	○
						54	DAUM-인물백과	×	○	

사례연구의 대상 사이트는 시각예술 분야 사이트 9종, 예술일반 사이트 분야 5종, 국악 분야 사이트 3종, 대중음악 분야 사이트 5종, 음악일반 분야 사이트 4종, 연극 분야 사이트 4종, 현대무용 분야 사이트 4종, 무형문화재 분야 사이트 1종, 문학 분야 사이트 12종, 영화 분야 사이트 1종, 방송 분야 사이트 1종, 구술사 분야 사이트 4종, 인물 분야 사이트 1종 등 총 54개의 사이트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 중 자원 개체를 추출해 분석한 사이트는 54개 중 36개 사이트, 주체 개체를 추출하여 분석한 사이트는 54개 중 42개 사이트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기술요소 추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 개체는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24개 요소 중 17개 요소(기록 양식 유형, 기록의 형태사항(전자적), 기록의 형태사항(물리적), 기록 식별자, 기록행위자, 기록 표제, 기록 내용, 기록 내용의 주제, 기록 접근, 열람, 공개, 기록 지식재산권, 기록 생산일시, 기록 언어, 기록 위치, 기록 관리 이력, 기록 수집, 연관자료, 기록 이용/활용/전개)와 172개 하위요소 중 69개 하위요소가 사례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둘째, 주체 개체는 동일한 5개 요소(주체 정보, 생산자 주기, 관계 자원, 관련 대상(주체), 주체정보 관리) 하위에 31개 하위요소가 산출되었다. ‘사진’, ‘소속/활동 유형’, ‘데뷔자원’, ‘신체정보’, ‘가족사항’, ‘주기사향’, ‘관계유형’, ‘정보 작성자’, ‘작성언어’ 등의 하위요소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 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의 비교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항목과 사례연구에서 나온 항목을 비교하여 기술요소를 추출한 항목은 다음 <표 6>, <표 7>과 같다. 먼저 <표 6>에 나온 바와 같이 자원 개체의 도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나오지 않은 요소들이 있었으나 사례연구에서는 문헌연구에서 나온 요소들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 이 중 2개 요소(개체유형, 예술작품의 양식 유형)를 예외로 남겨두었다. 개체유형 요소는 선행연구에서부터 강조되어온 자원 유형의 다양성(작품, 작품 관련 기록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의 양식 유형 요소는 문화예술자원의 장르 식별을 위함이다. 이 2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에 모두 존재하는 요소만을 산출하여 총 18개 요소 71개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7>에 나온 바와 같이 주체 개체의 도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요소는 23개, 문헌연구에만 언급된 요소는 5개, 사례연구에만 요소는 8개였다. 문헌연구에만 나온 요소는 관리 메타데이터 요소였는데, 이 부분은 기관 특성과 소장자원에 의거하여 재정립되어야 하므로 문헌연구에만 나온 요소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언급된 요소들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요소를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포함시켜야한다. 따라서 문헌연구에만 언급된 5개 요소만을 제외하여 사례연구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총 5개 요소 31개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6〉 자원 개체의 추출 요소

요소	하위요소	요소 산출 여부		요소	하위요소	요소 산출 여부			
		문헌	사례			문헌	사례		
기록의 양식적 유형	개체유형	○	×	기록의 접근, 열람, 공개	공개조건	○	○		
	(원본)기록의 양식 유형	○	○		공개수준 및 범위	○	○		
	미디어포맷	○	○	기록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유무 및 유형	○	○		
	저장매체	○	○		지식재산권 소유자	○	○		
예술작품의 유형	예술작품의 양식 유형	○	×	관련코드명	○	○			
기록의 형태 상황 (전자적)	포맷명	○	○	기록 생산일시	기록생산일자	○	○		
	수량	○	○	기록 언어	최초행위일자	○	○		
	영상규격(프레임/해상도, 비트율 넓/높이, 화면비))	○	○		발화언어종류	○	○		
	영상정보(재생시간(총 시간))	○	○		자막언어종류	○	○		
	영상정보(재생속도)	○	○	기록 위치	언어코드	○	○		
	영상정보(색채)	○	○		현재소장처	○	○		
기록의 형태 상황 (물리적)	크기	○	○	기록 관리 이력	소장처 내 물리적 위치	○	○		
	제작재료	○	○		관리주기	○	○		
	제작기법	○	○	기록 수집	관리일시	○	○		
	모양	○	○		입수유형	○	○		
	물리적 특성 기술	○	○		입수원(장소)	○	○		
	쪽수, 수록곡수	○	○		입수자	○	○		
기록 식별자	기본식별자-조직내	○	○	기록 수집	인계자	○	○		
	보조식별자번호-조직내	○	○		수집일자	○	○		
기록행위자	대표생산자	○	○	기록 수집	수집기간	○	○		
	보조생산자	○	○		연관자료	시리즈명	○	○	
	실연자	○	○			시리즈 순번	○	○	
	전송단체	○	○			관련 콘텐츠(자원)	○	○	
	생산출처기관	○	○			관련 개별 자료	○	○	
	개인이력	○	○			관련 비평정보	○	○	
기록 표제	공식제목명	○	○	기록 이용/활용/전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제목	○	○	
	부제목명, 소제목명, 본제목명	○	○		발표, 전시, 상영, 행위장소	○	○		
기록 내용	기술(주기)내용	○	○		발표, 전시, 상영, 행위기간	○	○		
	지리적 범위	○	○		최초발표, 전시, 상영, 행위일	○	○		
	시대적 범위	○	○		기록 이용/활용/전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주기(개체)	○	○	
	줄거리	○	○			발표, 전시, 상영, 행위주기(컬렉션)	○	○	
	시놉시스	○	○			기록 내용의 주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세부설명	○	○
	등장인물 수	○	○				기록 내용의 주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세부설명	○
등장인물 명	○	○	기록 내용의 주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세부설명			○	○
주제분류	○	○			기록 내용의 주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세부설명	○
법적분류	○	○				기록 내용의 주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세부설명	○
주제명(키워드)	○	○					기록 내용의 주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세부설명	○
장르	○	○	기록 내용의 주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세부설명	○
유형	○	○			기록 내용의 주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세부설명	○

<표 7> 주체 개체의 추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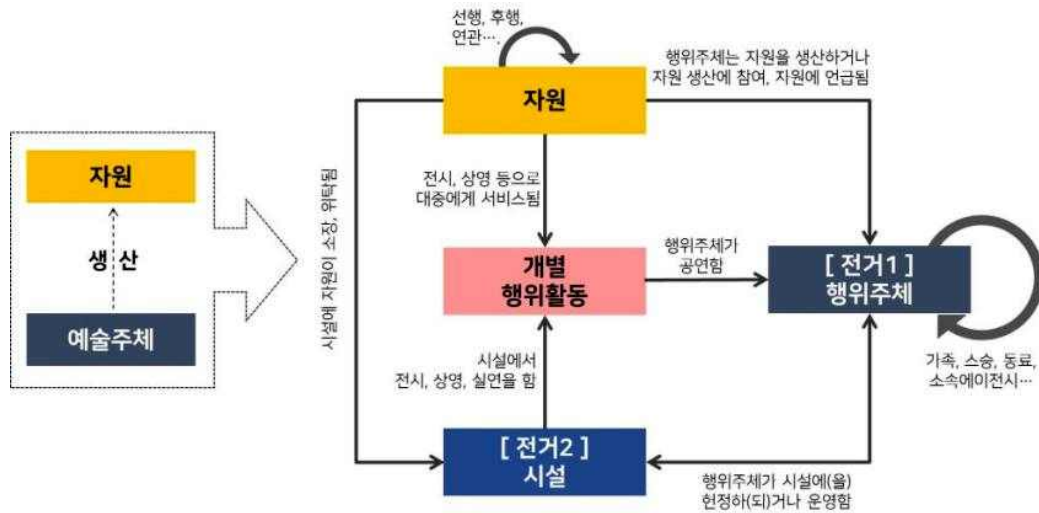
요소	하위요소	요소 산출 여부		요소	하위요소	요소 산출 여부		
		문헌	사례			문헌	사례	
주체 정보	선거코드	○	○	생산자주기	수상 이력	○	○	
	사진	×	○		작가 소개	○	○	
	선거명칭	○	○		전시 이력	○	○	
	대등명칭	○	○		관계 자원	관계자원명	○	○
	기타명칭	○	○	관계자원유형		○	○	
	생물년	○	○	주기사항		×	○	
	국적	○	○	관련 대상 (주체)	관련 대상명	○	○	
	출생지	○	○		관계대상유형	○	○	
	성별	○	○		관련 대상 주요 자원	○	○	
	소속/활동 유형(그룹/솔로)	×	○		관계의 기술	○	○	
	소속기관 및 연락 정보	○	○		주체 정보 관리	관리실행일	○	○
	활동기간	○	○			정보 작성자	×	○
	대위 작품	×	○	작성 언어		×	○	
	활동지역	○	○					
	최종학력	○	○					
	활동장르(전공)	○	○					
	신체정보	×	○					
	가족사항	×	○					

## 2. 기술요소 수정

### 가.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자문은 콘텐츠업체 대표 1인, 관광문화정책자문위원 1인, 미술학과 교수 1인,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1인, 문헌정보학과 교수 1인, 문화관광재단 2인으로 총 7인이 참여하였다. 자문회의는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범위와 플랫폼의 실현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자문회의를 통해 나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현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샘플링의 필요성이다. 도출된 기술요소를 남도의 문화예술자원에 적용했을 때도 실현가능한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 과정상에서 파일럿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 구두자문을 실시한 후 샘플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요소 추출 과정에서 개체의 세분화의 필요성이다. 정보포털형 서비스를 최종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면 문화예술 활용 가능한 외적 인프라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문화예술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 개체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체’ 개체 2개만을 두고 있다면, 문화예술자원이 실제로 재현되는 ‘시설’과 그 문화예술자원이 재현되는 매 순간마다의 활용과정(전시, 상연, 실연 등)을 독자적 개체로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문가 구두자문을 통한 개체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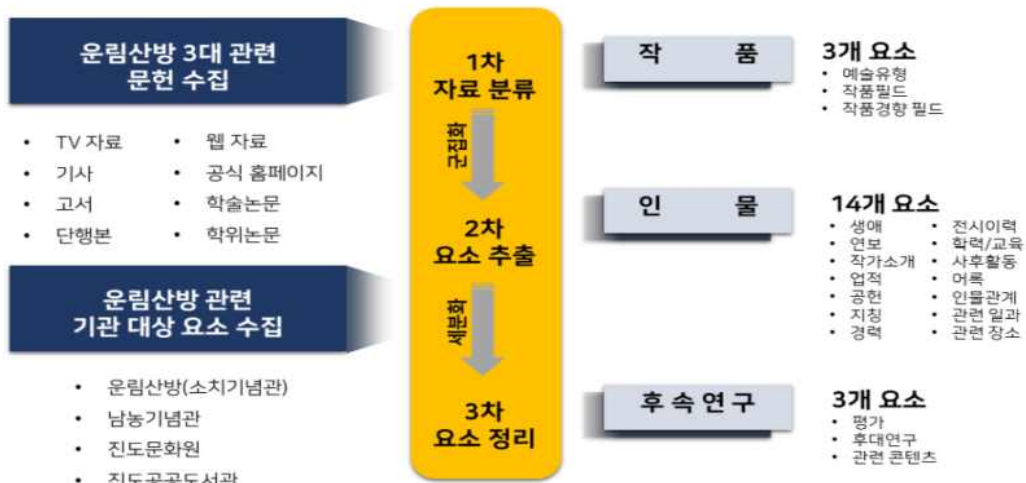
또한 연구진 논의를 통하여 관리 메타데이터를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NSA/K 8: 2016(v2.1))에 의거하여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 외의 유사 요소 통합 등을 통해 정리한 결과 자원 개체는 16개 요소 51개 하위요소, (행위)주체 개체는 8개 요소, 32개 하위요소로 산출되었다. 또한 개별 행위활동 개체가 2개 요소, 16개 하위요소, 시설 개체가 3개 요소, 16개 하위요소로 다음 <표 8>과 같이 산출하였다.

<표 8> 새로 도출된 개체(개별 행위활동, 시설)

개별 행위활동		시설	
요소	하위요소	요소	하위요소
개별 행위활동(활동/전개)	행위제목	시설 정보	시설 식별자
	행위장소		공간명
	행위장소 식별자		영문 공간명
	행위기간		기타 공간명
	최초행위일		개관년도
	행위주기		공간연혁
	행위세부설명		공간현황
	행위주체명		주소
	행위주체 식별자		연락처
	행위자원		서비스 내용
행위자원 식별자		개별 행위활동 식별자	
관리이력	관리유형	관리 이력	관리유형
	관리설명		관리설명
	관리일시		관리일시
	관리행위자		관리행위자
	변경요소		변경요소

나. 샘플링 내용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구두자문에 따라 실제 남도 문화예술자원을 적용시켜 샘플링 아카이브의 구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구두자문에 의해 선정된 진도 운림산방 3대와 관련된 자료 245건에 대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직접방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기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 도출된 기술요소를 수정보완하였다. 내용 분석을 통해 첫째, 요소 세분화 및 통합을 실시하였다. 전시도록 등에서 작품 제작방식에 대한 정보를 작품 재료, 제작 방식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기 때문에 자원 개체에서 제작주기 요소를 세분화하였다. 또 작가 관련 문헌들을 읽었을 때 작가 소개가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제외했던 작가 소개를 다시 삽입하였다. 한국 예술 특성상 출생지만큼이나 본관이 중요했기 때문에 본관 요소를 따로 생성하였다. 둘째, 할당값을 부여하였다. 행위주체간의 관계유형이 조상, 족손, 교유관계, 화가, 동시대 화가, 호적수, 스승 등 다양하게 나뉜 것을 가족/동료/사사관계 등 3가지로 나누어 할당값을 부여하였다. 해당 내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내용분석 과정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한 1차 기술요소 도출,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논의를 통한 기술 요소 수정, 운림산방 3개의 자료를 통한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는 작품 개체에서 3개 요소, 인물 개체에서 14개 요소, 후속연구 개체에서 3개 요소였다. 작품 개체와 후속연구 개체 요소를 자원 개체에 추가하고, 인물 개체 요소를 행위주체 개체에 추가하였다. 이후 연구진의 추가적 논의를 거쳐 기술요소를 구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실무 적용에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요소를 통합하였으며, 명칭의 경우 직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진행하여 예비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자원 개체는 15개 요소 48개 하위요소, 행위주체 개체는 6개 요소 23개 하위요소, 개별 행위활동 개체는 3개 요소 13개 하위요소,

시설 개체는 3개 요소 15개 하위요소로 정리되었다.

### 3. 최종(안) 도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예비안을 기준으로 최종안 도출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스템 구축·정보서비스·메타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공통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상 불필요하거나 관리상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하여 실무에 적용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필수 요소를 최소화하여 기술요소 작성자가 필요에 따라 하계끔 강제성보다 유연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술요소 작성에 있어서 작성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실무 적용을 위해서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요소들의 경우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언을 바탕으로 메타데이터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술요소 최종안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었다. 첫째, 요소와 요소에 소속된 하위요소이다. 둘째, 해당 요소를 설명하는 성질유형으로, 해당 요소의 필수여부·반복여부·공개여부이다. 각 성질별로 부여된 선택값과 그 설명은 다음 <표 9>와 같다. 해당 성질유형 및 선택값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NAK 8: 2016(v2.1))』을 준용하였다.

<표 9> 요소 설명 성질유형 및 선택값

성질유형	성질별 선택값		
	선택값	표기	설명
필수여부	필수	O	개체 식별에 관련된 값으로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요소
	해당시 필수	△	개체 식별과 관련되지 않으나 개체 이해에 필요한 요소로 해당/필요시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요소
	선택	X	개체 식별과 관련되지 않으나 개체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로 메타데이터 작성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입력 가능한 요소
반복여부	가능	O	복수의 값을 가지거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번 반복해서 기술할 수 있는 요소
	불가	X	단일한 값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술할 수 없는 요소
공개여부	기본공개	O	모든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서비스되는 요소
	선택공개	△	이용자 혹은 관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공개될지 공개되지 않을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요소
	비공개	X	관리나 개인정보 등과 연관되어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요소

이렇게 도출된 남도 문화예술 아카이브 최종 기술요소는 다음 <표 10>과 같다. 개체는 자원, 개별 행위활동, 행위주체, 시설 등 4개 개체가 도출되었으며, 도출 기술요소는 자원 개체 16개 요소 55개 하위요소, 행위주체 개체 6개 요소 32개 하위요소, 개별 행위활동 개체 3개 요소 14개 하위요소, 시설 개체 3개 요소 16개 하위요소이다.

〈표 10〉 전라남도 문화예술자원 기술요소

개체: 자원					개체: 개별 행위활동				
메타데이터 최종안					메타데이터 최종안				
요소 (필수/반복/공개)	하위요소	필수 여부	반복 여부	공개 여부	요소 (필수/반복/공개)	하위요소	필수 여부	반복 여부	공개 여부
자원 유형 (○/×/△)	개체유형	○	×	○	개별 행위활동 정 보 (○/×/○)	행위제목	○	×	○
	자료 유형	△	×	△		행위활동 식별자	○	×	×
	매체 유형	△	×	△		행위시설 식별자	△	×	×
자원 식별자 (○/×/○)	기본식별자(자원)	○	×	○		행위기간유형	△	○	○
	보조식별자(자원)	△	○	△		최초행위일	△	×	○
	사진(자원)	×	×	○		최초행위장소	△	×	○
표제 (○/×/○)	제목	○	×	○		행위주(cycle)	×	×	△
	외국어 제목	×	○	○		행위세부설명	×	○	○
	기타제목	×	○	○		관계 행위(행위) (×/○/○)	관계행위 식별자(행위)	△	×
생산정보 (△/×/○)	생산자	○	○	○	관계행위 유형(행위)		△	○	○
	생산일(기간)	△	×	○	관계행위 주기사항 (행위)		×	○	○
	생산지	△	○	○	관리어력(행위) (△/○/△)	관리일시(행위)	△	×	○
크기	△	×	△	관리행위자(행위)		△	×	×	
수량	△	×	△	변경요소(행위)		△	○	×	
형태사항 (△/×/△)	무게	△	×	△	개체: 행위주체				
	전자파일 포맷	△	○	△	메타데이터 최종안				
	작품재료	×	○	△	요소	하위요소	필수 여부	반복 여부	공개 여부
	제작방식	×	○	△	행위주체 정보 (○/×/○)	행위주체 식별자	○	×	×
	제작주기	×	○	△		사진(주체)	×	×	△
형태주기	×	○	△	이름		○	×	○	
주체 (×/○/○)	주체유형	×	○	○		외국어 이름	△	○	○
	주제명	×	○	○		기타 이름	×	○	○
내용 설명 (△/×/○)	내용주기	×	○	○		생년	△	×	○
	지리적 범위	×	○	○		몰년	△	×	○
	시대적 범위	×	×	○		성별	△	×	○
수상정보 (×/○/○)	수상일시	△	×	○		소속/활동 유형	×	○	△
	대회명	○	×	○		소속기관	×	○	△
	수상명칭	△	×	○		전화번호	×	○	△
접근 (△/×/△)	시상기관	○	×	○		이메일주소	×	○	△
	공개조건	△	×	△		주소	×	○	△
지식재산권 (△/×/○)	공개수준 및 범위	△	×	△		활동기간	×	○	△
	지식재산권유무 및 유형	△	○	○		출신학교	×	○	△
	지식재산권 소유자	△	○	△	전공	×	○	△	
언어 (△/○/△)	관련코드번호	△	×	△	최종학위	×	○	△	
	발화언어종류	△	○	△	행위주체 정보(지 역) (△/×/○)	국적	×	○	△
위치 (△/×/△)	자막언어종류	△	○	△		출생지역	△	×	△
	현재소장처	△	×	○		본관	△	×	△
수집/획득 이력 (△/○/×)	소장처 내 물리적 위치	×	×	×		활동지역	△	○	△
	입수유형	△	×	×		거주지역	×	○	△
	입수가격	△	×	×	사망지	×	×	△	
	입수장소	△	×	×	묘소 소재지	△	×	△	
	입수자	△	×	×	예술활동 유형	-	○	○	○



	인계자	△	×	×	약기	-	×	○	○
	수집기간	△	×	×	소개	-	△	○	○
관계 자원 (×/○/○)	관계자원 식별자	△	×	○	관계 주체(주체) (×/○/○)	관계주체 식별자(주체)	△	×	○
	관계자원 유형	△	○	○		관계주체 유형(주체)	△	○	○
	관계자원 주기사항	×	○	○		관계주체 주기사항(주체)	×	○	○
관계 행위(자원) (×/○/○)	관계행위 식별자(자원)	△	×	○	관לי력(주체) (△/○/△)	관לי일시(주체)	△	×	○
	관계행위 유형(자원)	△	○	○		관לי행위자(주체)	△	×	×
	관계행위 주기사항(자원)	×	○	○		변경요소(주체)	△	○	×
관לי력(자원) (△/○/△)	관לי유형(자원)	△	×	×	개체: 행위주체				
	관לי설명(자원)	△	○	×	메타데이터 최중안				
	관לי일시(자원)	△	×	○	요소	하위요소	필수 여부	반복 여부	공개 여부
	관לי행위자(자원)	△	×	×	시설 정보 (○/×/○)	시설 식별자	○	×	×
	변경요소(자원)	△	○	×		시설명	○	×	○
						외국어 시설명	×	○	○
						기타 시설명	×	○	○
						개관년도	△	×	○
						시설연혁	×	○	○
						시설현황	×	×	○
						주소	△	×	△
						전화	△	○	△
					이메일	×	○	△	
					관계 주체(시설) (×/○/○)	관계주체 식별자(시설)	△	×	○
						관계주체 유형(시설)	△	○	○
						관계주체 주기사항(시설)	×	○	○
					관לי력(시설) (△/○/△)	관לי일시(시설)	△	×	○
						관לי행위자(시설)	△	×	×
						변경요소(시설)	△	○	×

자원 개체의 경우 세분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초창기에 제시되어 있다가 검토를 통해 삭제했던 수상정보 요소를 다시 세분·상위요소로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입수가격, 무게 등이 세분되어 신설되었다. 행위주체 개체는 소속기관 및 연락 정보가 세분화되었고, 최종학력과 생몰년, 묘소 소재지, 작가 소개 등의 요소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었다. 개별 행위활동 개체는 최초행위일, 즉 초연일과 최초 상영일 등이 장소 등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었다. 시설 개체는 연락처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구분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전문가 서면자문의 공통된 지적은 요소의 적용에 유연성을 포함하여 작성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요소의 성질유형인 필수여부, 반복여부, 공개여부를 적용하고 특히 서면자문에 따라 필수여부가 부여된 항목을 최소화하였다. 더불어 이 기술요소는 구현형태로서 정보포털과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전제하고 있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성된 요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항목을 공개로 지정하였으나, 실무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공개요소는 실무상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도문화예술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남도문화예술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주체 개체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요소를 선정하고 전라남도 지역을 선택값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위주체 개체의 '행위주체 정보(지역)' 요소에는 최종적으로 국적, 출생지역, 본관, 활동지역, 거주지역, 사망지, 묘소 소재지 등 총 7개의 지역 관련 요소가 있다. 이 중 출생지역, 활동지역, 거주지역, 사망지, 묘소 소재지 등에는 전라남도 관할 지역이 선택값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아카이빙의 대상이 된 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남도지역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남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선택값을 부여하고자 했다. 전남의 문화예술자원인 진도 윤림산방의 허씨 3대 자료를 샘플링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요소를 역으로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나 사례연구 등 보편적인 메타데이터 연구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전남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였다. 예컨대 주체와 주체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주체 유형(주체)'는 가족, 사사, 동료 관계로 나뉜다. 이는 소치 허련의 풍부한 인맥관계를 분석하여 통합을 거친 결과 3개로 유형화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설유형의 분류와 행위유형의 분류 등은 2015년 연구된 전남문화지표의 분류체계를 따랐다. 전라남도의 문화적 지향성을 반영한 문화지표의 분류체계 적용을 통하여, 요소가 가지는 지역적 차별점을 강조하고 다른 전라남도 지역관련 연구와의 일관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차별점은 이 기술요소가 전남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가 문화예술자원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개체의 적용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다중개체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일부 연구는 실제로 다중개체 방식을 적용하여 기술요소나 메타데이터를 개발했다. 따라서 전남 아카이브 기술요소에서도 다중개체를 적용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체를 '자원', '개별 행위활동', '행위주체', '시설'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공연이나 특정 예술분야에 국한되었던 반면, 이 연구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문화예술 분야를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개별 행위활동'을 독자적인 개체로 분리하였다. 전시회나 1회의 공연 등은 그동안 개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자원 개체에서 '전시 이력' 등으로 기술되던 일부 요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독자적인 개체로 분류하였을 경우 1) 해당 자원이 얼마나, 언제 자주 활용되었는지, 2)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전시되었는지, 공연되었는지, 상연되었는지, 교육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창민(2015)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작품 전체, 개별 공연, 1회의 공연 등으로 나뉘어서 중요성이 언급되었었다. 하지만 이처럼 전시, 공연, 상영 등의

행위를 독자적으로 분류하게 되면서 자원의 활용성, 지속성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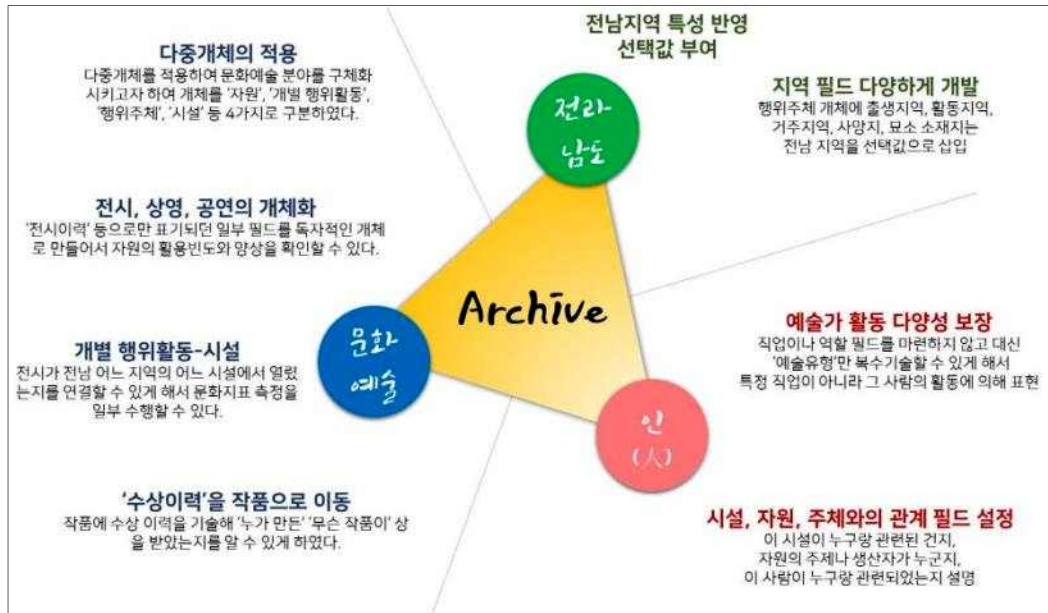
셋째, ‘개별 행위활동’을 ‘시설’과 연계하였다. 즉, 전시나 공연, 상연이 어느 지역의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요소를 설정하였다. ‘개별 행위활동’의 ‘행위시설 식별자’를 통해 정의하였다.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아카이브에서 전시, 공연, 상연 등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해당 부분을 양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해당 기술요소가 잘 활용될 경우 문화지표 측정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넷째, ‘수상 이력’을 자원 개체로 이동함으로써 수상한 상이 어떤 작품을 통해 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수상 이력’은 많은 사례들에서 주로 예술가, 즉 행위주체에게 속한 요소였을 뿐 자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간에는 수상자가 어떤 작품을 통해 수상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별도의 필드를 통해 수상 이력을 기술함으로써 ‘누가 만든’, ‘무슨 작품이’ 수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단순히 주체와의 관계로 볼 뿐 아니라 주체-작품-수상 등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단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기술요소가 예술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타 기술요소와의 차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주체를 전거데이터로 활용하는 요소를 ‘시설’, ‘자원’, ‘행위주체’ 자체 등 3가지로 설정하였다. 즉, 특정한 시설이 누구와 관련되어있는 시설인지, 이 자원이 누구를 주제로 하고 있거나 혹은 누가 생산했는지, 이 사람이 누구와 관련되어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독자적인 ‘직업’이나 ‘역할’요소를 마련하지 않고, ‘예술 유형’ 요소를 두었다. 즉, 문화예술 활동에 근거한 예술가 삶의 맥락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인을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문화예술 유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서예, 한국화, 행위예술 등을 복합적 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세 가지 유형 모두에 체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이 소속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활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런 관계는 그간 기술요소에서 볼 수 있었던 작품-생산자의 1:1 관계가 아니라, 생산자-지역, 생산자-후대의 명성(시설), 생산자-생산자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맥락을 잇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차별점

## V. 결론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중심지와 주변부라는 공간의 이분화를 극복하고 다수의 중심지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매개이다. 기록의 가치를 기존에 논의되어왔던 증거적·정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현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문화현상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자원을 보존함으로써 고유한 중심지로서 한 지역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고, 접근 및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자원 자체의 재생산을 지원하며, 재생산된 문화예술자원의 재축적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이 반영할 수 있다. 즉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지역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상(狀)이며 집합적 기억이다.

남도는 예로부터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예향’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으며,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남도문예 르네상스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예술자원의 축적과 체계적 조직은 이렇듯 다양한 남도문화 진흥사업의 기반으로 실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자원의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어, 아카이브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본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다.

문화예술은 사회적 합의와 대중의 인식을 반영한 예술분야로써, 특히 지역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을 태동시킬 수 있는 근간이다. 문화예술은 지역의 정체성을 재생산할 수 있는 표본이 되며 지역은 문화예술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기준이 되어줌으로써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문화를 복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자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예술자원 조직화 연구와 더불어, 제도적·실무적 측면에서의 고려와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주제(이 경우에는 남도)에 대한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바탕 아래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선행연구 및 실무자료를 모아 비교분석하고, 문화예술·정보서비스·시스템·메타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9인에게 자문을 요청함으로써 문화예술자원 기술요소를 도출하였다. 문화예술자원 기술요소는 자원, 개별 행위활동, 행위주체, 시설 등 4개의 다중개체로 구축되었다.

문화예술자원 기술요소는 문화예술이 가져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를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함과 동시에 ‘지역’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내용적 특징을 가졌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술요소에서는 행위주체 개체에 국적, 출생지역, 본관, 활동지역, 거주지역, 사망지, 묘소 소재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삽입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가 정태적일 수 없듯 문화예술 아카이브 또한 정태적일 수 없다.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가 지역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집합적 기억의 소산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걸친 미봉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을 축적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개념을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남도의 문화예술자원 중 윤림산방 3대의 자원만을 샘플링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남도문에 르네상스의 분야가 12개이고, 그 하위에 속한 문화예술인이 많을뿐더러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예·수묵화에 집중된 윤림산방 3대의 자원 뿐 아니라 종가문화, 바둑, 문학, 다도, 도자, 판소리, 음식문화, 공예, 전통연희, 고인돌 등 남도의 특색을 갖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의 관점에서도 샘플링을 통해 적용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실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후속연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16.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NAS/K 8: 2016(v2.1))』. 파주: 국가기록원.
- 김경연. 2012. 『아트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 김상현, 손정훈. 2008. 아시아문화지도 문화분류체계와 기반기술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1: 173-203.
- 김선미, 김익한. 2011.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8: 35-81.
- 김진성. 2011.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0: 89-123.
- 김진용. 2013. 『개인아카이브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류한조. 2013. 문화 아카이빙 정착을 위한 방향 연구. 『기록학연구』, 37: 41-74
- 문순덕. 2012. 『제주문화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재인용: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실태조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 (p. 42).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박옥남, 오삼균, 김세영. 2009. 문화예술교육 패킷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197-219.
- 부산문화예술 전자아카이브. 2018. <<http://e-archive.bscf.or.kr>> [인용 2017. 12. 30].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실태조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 (KACE-1670-R003)』.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서울연구원. 2015. 『서울문화지표 체계구축 연구(연구-2014-01)』. 서울: 서울문화재단.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 송병호. 2009. 기록과 정보의 상관관계. 『기록학연구』, 20: 3-32.
- 양서희. 2011. 『지역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록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오동욱. 2013.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공연분야를 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 12(1): 99-122.
- 오삼균, 권기성. 2007. 전통예술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387-412.
- 오세준. 2016.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Cultural Arts의 개념.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1): 71-87.
- 유동환. 2013. 디지털 문화유산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화콘텐츠연구』, 3: 95-121.
- 이동수, 김현수, 서윤아, 윤니나. 2017.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연구』, 17(3), 75-84.
- 이명규. 2015.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319-340.

- 이옥희. 2014. 남도 문화예술의 미적 특성과 문화 가치. 『용봉인문논총』, 44: 33-57.
-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재나, 김용, 오효정, 김진. 2015. 웹툰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123-149.
-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 이지은, 김지현. 2015.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6: 45-93.
- 이창민. 2015. 『다중 출처 기반의 공연예술자료 기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 장지영. 2017. 『미술작가의 기록 생산과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 장혜윤, 임채홍. 2017.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특성과 분류체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정책연구』, 17(2): 27-52.
- 정공주, 박주석. 2014.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기록학연구』, 40: 61-93.
- 정옥경. 2010. KDC 예술류(600) 분류항목전개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109-122.
- 조수민. 2015. 『기능 영역 기반 미술기록 메타데이터 기술 요소에 관한 연구: 대전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조정임. 2010. 『대중음악 기록관의 구축과 기록관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2013.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3판)』. 성남: 아세아문화사.
-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11-1371000-000452-11)』.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한희정, 김태영, 김용. 2016. 다중개체모형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329-359.
- 허지수. 2013. 『미디어아트 도큐멘테이션을 위한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황진현. 2012. 『시각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6. *Metadata Standard for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Version 2.1. (NAS/K 8: 2016(v2.1))*. Paju: National archives of Korea.
- Kim, Kyung Youn. 2012. *A Study on Design of Art Archives Metadata - By Focusing on Fine Art Records -*.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Kim, Sangheon. & Son, Jeong Houn. 2008.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Technology for Asia Culture Map." *Academic Association of Global Cultural Contents*, 1: 173-203.
- Kim, Seon Mi. & Kim, Ik Han. 2011.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Manhwa Contents Records and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8: 35-81.
- Kim, Jin Sung. 2011. "A Study on Description about Archival Materials in Film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89-123.
- Kim, Jin-Yong. 2013.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by Type of the Personal Archives*.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Ryu, Han-jo. 2013. "A Study of Establishing Culture Archiving."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7: 41-74.
- Jeju Research Institute. 2012. *Development and Utilization Measures of Jeju Culture Indicator*. Jeju: Jeju Research Institute. Quoted in Sangmyung University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2017. *A Study on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Survey and Utilization of a Local Arts & Culture Education Materials (KACE-1670-R003)*. Seoul: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Park, Ok-Nam., Oh, Sam-Gyun. & Kim, Se-Young. 2009. "A Study of Facet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ment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197-219.
- Busan Cultural Foundation Online Archives. <<http://e-archive.bscf.or.kr>> [cited 2017. 12. 30].
- Sangmyung University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2017. *A Study on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Survey and Utilization of a Local Arts & Culture Education Materials (KACE-1670-R003)*. Seoul: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The Seoul Institute. 2015. *A Study on Establishment of Seoul Culture Indicator System (Research-2014-01)*. Seoul: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Seol, Moon Won. 2010.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103-149.
- Seol, Moon Won. 2011.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of Art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217-247.
- Song, Byoung-Ho. 2009. "Inter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Inform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0: 3-32.
- Yang, Seo-Hee. 2011. *A Study on Literature Records Management for Invigoration of Local Literature Museum*.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Oh, Dong-Wook. 2013. "A Study on Archiving of Cultural Arts in a Region: Focusing on Performing Arts." *Journal of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2(1): 99-122.
- Oh, Sam-Gyun. & Kwon, Ki-Seong. 2007. "Designing Preservation Metadata for Archives of Korean Traditional Ar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4): 387-412.
- Oh, Sae-Joon. 2016. "Social and Cultural Meaning of Munhwayesul Koyuk and the Concept of Cultural Arts." *Research of Dance Education*, 27(1): 71-87.
- Yoo, Dong Hwan. 2013.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Digital Heritage Study."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3: 95-121.
- Lee, Dongsoo., Kim, Hyunsu., Seo, Yoona. & Yoon, Nina. 2017. "A Exploratory Study of Developing Regional Arts and Cultural Education Resources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17(3): 75-84.
- Lee, Myoung-Gyu. 2015.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Cultural Resource in AC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319-340.
- Lee, Ok-Hee. 2014. "Aesthetic Characteristic and Cultural Value of NAMDO Culture and Arts." *Yongbong Journal of Humanities*, 44: 33-57.
- Lee, Eun-Hwa. 2009. *A Study on Personal Record Collections at Archives - Analysis of Bae Min Su Collection -*.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Lee, Jae-Na., Kim, Yong., Oh, Hyo-Jung. & Kim, Geon. 2015. "A Study on Design and

- Implementation for Web-toon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4): 123–149.
- Lee, Jungyeoun. 2009. “A Study on Modeling Metatdata and Developing Standard Elements to Establish Oral History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163–184.
- Lee, Ji Eun. & Kim, Ji Hyun. 2015. “A Study on the Proposal for the Description Elements of Art Museum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45–93.
- Lee, Chang–Min. 2015. *A Study on Description for Performing Arts Resources based on Multiple Provenance*. M.A. thesis, Hans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Jang, Ji–Young. 2017. *A Qualitative Study on Record Creation and Use of Artists*. M.A. thesis, Hans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Jang, Hye–Yun. & Im, Chae–Hong. 2017. “A Empirical Study on a Characteristic and Classyfication System of Arts & Culture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17(2): 27–52.
- Jung, Kong Ju. & Park, Ju Seok. 2014. “A Study on Acquisition Strategy of Records for Artists and Their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0: 61–93.
- Chung, Ok–Kyung. 2010. “A Study on the Changes of Expansion of Classification Number of the Arts in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3), 109–122.
- Jo, Su–Min. 2015. *A Function–based Approach of Developing Metadata Scheme for Art Archives: A Case Study of the Daejeon Museum of Art*. M.A. thesis, Han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Jo, Jeong–Im. 2010. *Establishment and Records Management of Popular Music Archive*. M.A. thesis, Hansi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Korean Records Management Society. (Ed.) 2013. *Records Management (3rd nd)*. Seongnam: AsiaMunwasa.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the Sixth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6. *2016 The Survey of Cultural Enjoyment (11–1371000–000452–11)*.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Han, Hui-Jeong., Kim, Tae-Young. & Kim, Yong.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tadata Schema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sed on Multiple Entity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329-359.
- Huh, Ji-sue. 2013. *A Study on the Metadata Elements for Media Art Documentation*. M.A.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Hwang, Jin-hyun. 2012. *A Study on Metadata Design for Visual-Arts Archives Management*. M.A.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public of Korea.